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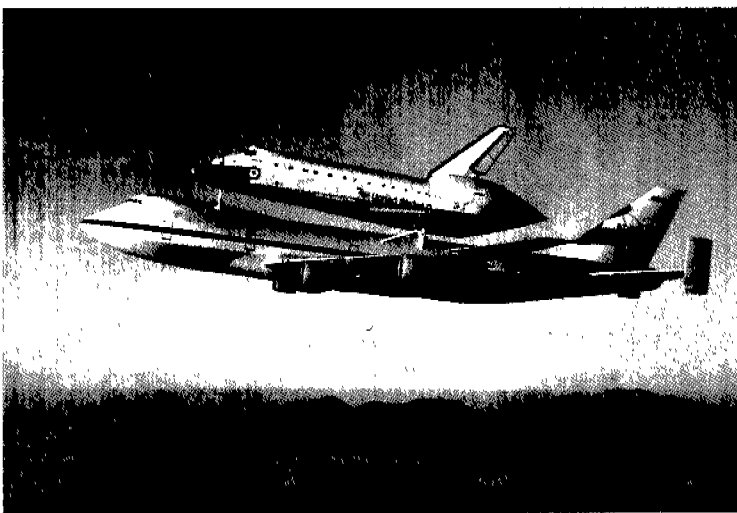
항공분야에 많은 영향을 준 해운 분야

왜 항공기의 제원표나 계기판에서 우리 생활에 익숙한 미터, 킬로단위를 쓰지 않고, 생소한 피트, 파운드단위를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혹자는 비행기가 인치 스케일을 사용하는 미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닌게 아니라 러시아 항공기들의 계기판이 미터, 킬로단위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항공분야가 생길 때 기존의 해운분야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옳은 해석이 될 것 같다.

해운은 항공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도 주요한 대륙간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지난 세기 들어 새로운 항공분야가 등장하였을 때 많은 부분을 기존의 해운분야에서 그대로 모방했으리라는 것까지는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항공기의 속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노트(Knot)단위이다. 1노트는 1해상마일(Nautical Mile, NM, 1,852m)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이 단위는 16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배의 고물에서 풀어내는 부낭의 밧줄에 30피트 간격으로 지은 매듭(Knot)이 28초 동안에 몇 개나 통과하는가를 보고 배의 속도를 판단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1해상마일이라는 단위로 지구 적도의 위도 및 경도의 1분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서 비롯된 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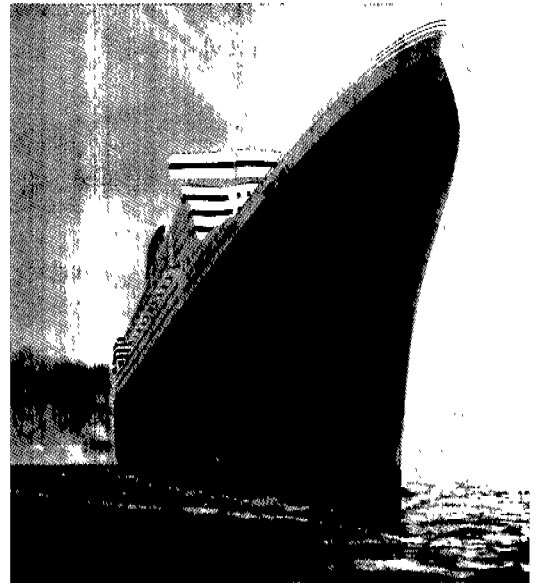
그리고 항공기의 조종석을 콕핏(Cockpit)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말은 구덩이를 파 놓고 그 속에서 닭끼리 싸움을 시키는 스포츠인 투계(Cockfighting)에서 유래되었고, 해운분야에서는 함선에서 항상 수면 아래에 위치한 최하 갑판 후부의 사관실을 지칭하는데 쓰였다가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조종사 또는



운항승무원이 위치하는 곳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외피가 완성된 상태에서 취역에 이르기까지 용도상 필요한 각종 기기, 설비, 내장 등을 부착하고 조정하는 제작공정을 선박과 마찬가지로 의장공사(Equipment)라고 부르고 있으며, 추진기도 선박에 달려 있는 바람개비식 스크류 프로펠러(Screw propeller)의 이름을 따 프로펠러라고 부르고 있다.

조종사를 의미하는 파일럿(Pilot)이라는 말도 원래는 해운분야의 수로 안내인, 조타수, 도선사 등 함선의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항공기의 기



장·승무원도 배의 선장·승무원과 마찬가지로 Captain·Crew라고 부르고 있다.

용어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운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민항기의 기장이 함선의 선장과 마찬가지로 4줄의 수장이 달린 유니폼을 입는다면, 과거 범선 선수의 여성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현대 군용기의 여성 노즈아트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심지어는 우주공간을 날아다니는 우주선의 승무원을 부를 때도 '선장', '항해사' 등의 표현을 아직 쓰고 있으니, 우주시대가 되어도 과거 해운분야의 영향은 여전히 잔존한다. ☺